

앵두나무 잎새에 이는 바람 ... 그때 나도 터질 듯 붉었을까

앵두의 길

- 이경림

그때 나도 터질 듯 붉었을까
온몸에 뱀뱀이 그걸 매달고
미친 듯 역류하고 있었을까

생각날 듯, 생각날 듯 앵두꽃 떨어지고
어디 꽃자리만 한 영혼이 문득 앵두로
익어갈 때
누군가 간절히

-애들아, 그만 내려와, 너희들은 지금
너무 빨갈구나

타이르는 저편 하나 없이 막무가내
맹렬인 척 다들랐을까
부지불식의 속을 짓물리고 있었을까

가치마다 아이들을 다따다닥 매단 그 나
무는
왜 어찌서 어떻게
그렇게 한 자리를 전속력으로 달아났
을까

달아나면서, 갈피마다 빨갈게
죽은 아이를 숨긴 채
마침내 가장 어린 가지에 깊이 찢린 것
일까

그것이 앵두일까
앵두의 끝일까

가령, 천지간에 가득한 앵두 하나 있어
최고도 붉고 깊고도 휘둥그런 앵두 하나
있어
아득하고 모호하고 번개 같고 굵뎀이
같은 앵두 하나 있어
아침보다 자욱하고 저녁보다 텅 빈 앵
두 하나가 있어

마침내, 수미산보다 크고 눈곱보다
작은
새빨간 장롱 같은 앵두 하나
까뭇러칠 듯 익는 동안

나는 피비린내를 과육향으로 뽀얗으며
무슨 유구한 영혼처럼 어른거리던 그
나비들을 다 버려야 할까

그러나 나무 위로 올라간 앵두들은 끝
내 내려오지 않고
불이 터져라 달아나기만 하는데
어찌자고 참

앵두는 앵두
앵두나무는 앵두나무



‘2016 제1회 운동주서시문학상’ 수상작품집 발간

운동주는 한국인들이 가
장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한
명이다. 그의 ‘서시’ 역시 가
장 좋아하는 시 가운데 한편
으로 꼽힌다. 그의 시는 부
끄러움이 실종된 오늘의 시

대를 향한 준엄한 ‘죽비’와도 같다.
시인 윤동주(1917~1945). 그는 사슴처럼 순수하
고 해맑은 영혼의 소유자였다. 어릴 적 아명이 해환
(海煥)이었다. 부친은 “해처럼 빛나게 살라”는 뜻으
로 그 같은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도
덕적 삶을 살고자 했던 윤동주의 순결한 의지와 그
의 생애 깃든 가없는 슬픔을 기억한다.

광주일보와 계간 ‘시산맥’이 공동으로 제정한
‘2016 제1회 운동주서시문학상’의 올해 수상작품
집(시산맥)이 발간됐다. 지난 한 해 각종 문예지에
좋은 작품을 발표하고 평판이 부끄럽지 않은 시인
을 대상으로 문학상 위원들이 심사를 한 결과 각 분
야의 수상자들이 지난날 결정됐다.

수상작 작품집에는 서시문학상 본상(상금 1000
만원) 수상자인 이경림 시인의 ‘앵두의 길’ 외 6편
외에도 ‘운동주해외작가상’ 수상작 김미희 시인의
‘수선집 그녀’와 4편, ‘운동주서시해외작가특별상’
수상작 최연홍 시인의 ‘잉카 여자’ 외 5편 등 다수의
시들이 수록됐다.

또한 각 부문 수상자들의 자선대표작과 작가 연
보, 심사평 등도 실려 있어 심사 경위를 비롯한 선정
작품 의미 등 올해의 운동주서시문학상에 관한 다
양한 면모를 가늠할 수 있다.

운동주서시문학상 본상을 맡은 유안진·송찬호
시인과 고병준 평론가는 “안정감이나 신선함이냐,
시인의 내면이 선명하게 투영된 작품이나, 서정시

광주일보·계간 ‘시산맥’ 공동 제정
본상 이경림 ‘앵두의 길’ 외 6편
해외작가상 김미희 ‘수선집 그녀’
해외작가특별상 최연홍 ‘잉카 여자’ 등
다수의 작품과 추천우수작 실려

의 주관성에서 조금 비껴 선 작품이나, 결국 최종적
인 선택의 기준은 이런 것이었던 듯하다”면서 “‘운
동주’라는 이름의 주술적인 힘이 있었을까? 잡지 않은
선택의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 사람의 심사위
원이 이경림 시인의 작품을 수상작으로 결정하기까
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때 나도 터질 듯 붉었을까/ 온몸에 뱀뱀이 그
릴 매달고/ 미친 듯 역류하고 있었을까// 생각날
듯, 생각날 듯 앵두꽃 떨어지고/ 어디 꽃자리만 한
영혼이 문득 앵두로 익어갈 때/ 누군가 간절히/-
애들아, 그만 내려와, 너희들은 지금 너무 빨갈구
나...”(‘앵두의 길’ 중에서)”

심사위원들의 평담게 이경림 시인의 ‘앵두의 길’
은 강렬한 울림을 주는 작품이다. 윤성렬 심의위원
이 밝힌 대로 “오직 자신의 영혼과 치열한 싸움을
벌인 끝에 독창적인 시세계를 펼친, 또 하나의 운동
주가 존재하리라는 믿음”을 떠올리게 한다.

이경림 시인은 수상소감에서 “솔직히 제 것이 아
닌 것이 잘못 날아온 듯한 낭패감 같은 것도 들었다.
언제 한 번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진정 괴로워 해보
지도 못했다”면서 “저보다 더 치열하고 훌륭한 시
를 쓰는 많은 시인들의 뒤편을 가로챘 죄값이라 생각



이경림 시인



김미희 시인



최연홍 시인

하며 도망치지 않고 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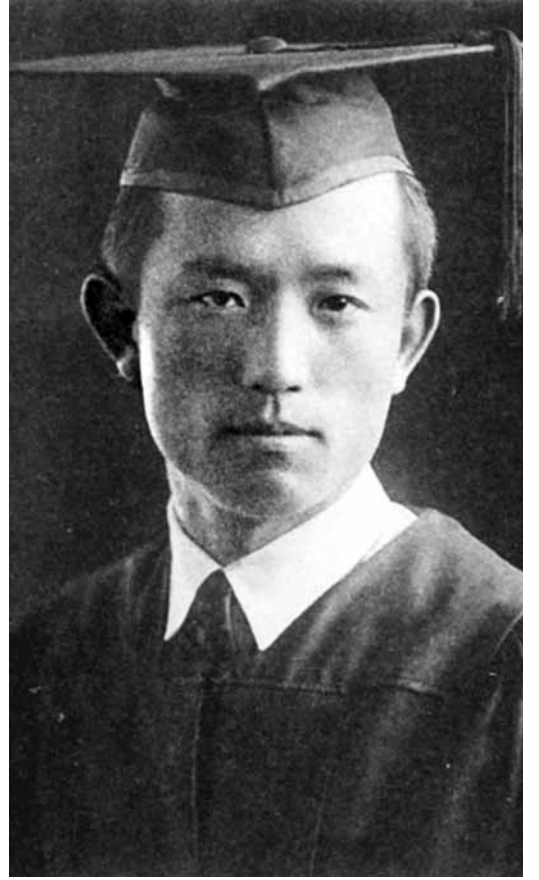
이 시인은 경북 문경 출생으로 1989년 ‘문학과 비
평’ 붓호로 등단했으며 ‘토씨찾기’, ‘그곳에도 사거
리는 있다’, ‘시절 하나 온다, 잡아 먹자’ 등 시집을
출간했으며 제6회 지리산문학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집에는 해외에 거주하면서 한글의 정신
을 잊지 않고 시를 쓰는 시인을 대상으로 공모한 ‘운
동주 서시해외작가상’ 수상자인 김미희 시인의 ‘수
선집 그녀’ 외의 다수 작품도 실려 있다. 현재 미국
달라스에 거주하는 시인은 2005년 ‘미주문학’ 시인
상으로 등단했으며 달라스한인문화회 회장을 맡고
있다. 1999년 ‘유다의 잔’ 단역으로 역극계에 발을
들었고 지난 2월에는 배우 최종원 씨와 함께 연극
‘늙은 부부 이야기’로 미주 순회공연을 한 바 있다.

심사위원들은 김미희 시인의 작품에 대해 “수선
집 그녀”는 디아스포라의 시작 보고서이다. 낯선
땅에 정착해 가파르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 이민자
의 일상을 단단한 직관의 언어로 이미지로재롭게
불러내고 있다”고 평했다.

또한 이번 수상집에는 해외에서 운동주 시인을
기리는 활동을 전개해온 문인에게 주는 ‘운동주서
시해외작가특별상’의 주인공 최연홍 시인의 ‘잉카
여자’와 다른 시들도 수록됐다.

문정영 운동주서시문학상 대표의 추천의 글에서
“최 시인은 2000년 중반 무렵 운동주문학사상선양
회가 한국에서 생겨나 미국 도처에 운동주를 사랑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게 되면서 위상된 지부



운동주 시인

를 맡아 이끌어 왔다”며 “운동주 시인의 작품을 영
어로 번역하고 논문 등을 통해 운동주 시인의 작품
해설을 꾸준히 해왔으로써 다른 어떤 시인보다도
운동주 문학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고 평했다.

수상작품집에는 각 부문 추천우수작들도 함께 수
록돼 있어 운동주 시인을 매개로 한 다양한 작품들
을 만나볼 수 있다. 운동주 서시문학상 추천우수작
에는 송중규·오택환·이장욱·조정인 시인의 작품
이, 운동주 서시 해외작가상 부문 추천우수작에는
송순태·이명숙·이상묵·정봉희 시인의 시들이 담
겨 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26일(오후 4시 30분) 서울 동
국대학교 중강단(본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의
010-8894-8722.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이 몸의 소망 무언가’ 광주장로찬양단 제 23회 정기연주회

21일 광주문화회관 대극장

광주장로찬양단(단장 진근만 장로·광
주서석교회·사진)이 오는 21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제
23회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이번 연주회는 단원 92명이 참여해 총
3개 스테이지로 나뉘 다양한 찬양가를
들려줄 예정이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로 문을 여는 첫
번째 스테이지 ‘은혜의 노래’에서는 ‘주
는 포도나무’,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주는 반석’을 부른다. 두 번째 ‘감
사의 노래’에서는 ‘다 함께 찬양해’, ‘주
안에 하나되어’, ‘여호수아 성을 쳤네’를
들려준다. 마지막 스테이지 ‘영광의 노
래’에서는 ‘주님 기뻐하시리’, ‘영화롭도



다’, ‘찬양해 오 예루살렘’을 선사하는 등
총 9곡이 연주된다.

또 남성 중창단의 ‘항구의 종’, ‘주님’
등 2곡, 진근만 단장이 지휘하는 ‘나 같
은 죄인 살리신’, ‘서로 사랑하자’ 등 특
별무대도 꾸며진다. 그밖에 소울 트리오
가 ‘사랑해요’ 등 3곡을 피아노 3중주로

연주한다. 지휘는 이준씨가, 반주는 김
은희·이주영씨가 맡는다.

한편 지난 1992년 창단한 광주장로찬
양단은 지역 7개 교단 63개 교회 장로 92
명으로 구성된 단체다. 문의 062-604-
032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문화전당 ‘2016 아시아 스토리 워크숍’

28일~12월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오는 28일부
터 12월1일까지 문화전당에서 ‘2016 아
시아 스토리 워크숍’을 개최한다. ‘2016
아시아 이야기 축제’도 오는 3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진행된다.

올해로 2회째 개최되는 ‘아시아 스토
리 워크숍’은 중앙아시아 각국 이야기를
소재로 한 독창적 문화콘텐츠를 ACC의
창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행사는 한국 그림 작가 5인과 중앙아
시아 5개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
스탄)의 글 작가 5인이 1대 1로 연결돼
각 한 편의 그림책을 제작하는 국제교류
레지던시 프로그램이다.

이들이 공동제작한 그림책 5권은 한
국어와 러시아어로 번역돼 전시된다.

문화전당 정보원 라이브러리파크 라
운지에서 열리는 ‘아시아 이야기 축제’
에는 ‘2016 아시아 스토리 워크숍’을 통
해 제작된 그림책과 원화 아트프린트 등
이 선보인다. 또 2015년에 제작한 그림
책을 활용한 교구도 전시된다.

이번 축제에는 이탈리아 볼로냐 국제
아동 도서전에서 라가치상을 받은 정진
호 작가와 제2회 CJ그림책 공모전에서
일러스트 부문 대상을 수상한 김성희 작
가 등 5명이 참가한다. 중앙아시아에서
는 비엔나 국제문화공모전 등에서 수상
한 키르기스스탄의 아셀 아야뽀바 작가
등 5명이 참여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건)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솔향기맑은터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참숯가마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빠는날, 화, 목, 토, 일
- ▶ 불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 ▶ 염가공금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맛의향연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